

하나됨과 나눔

“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 ”

〈 시편 119편 35절 〉

- 새해를 맞아 각 가정과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 오늘 역할공동체별로 실행위원회가 있습니다.
- 다음 주일에는 공동체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 제25회 기독교대안학교연맹 컨퍼런스가 7일(수)부터 9일(금)까지 충북 보은군 ‘속리산 포레스트’에서 모입니다. 컨퍼런스와 참석하는 교사들을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 2026년 예배 반주자입니다.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이흥인 정아인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홍삼성 장로 · 임명숙 권사 · 임은숙 집사 가정 (감사)

강단을 꽃으로 : 이윤순 · 정연갑 집사 가정 (신년 감사)

신협(헌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시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3 - 1 호

202년 1월 4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2026년은 병오년, 붉은 말의 해입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성실히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의 섭리를 따라 주어진 하루를 일주일, 한 달, 사계절, 일 년으로 채우며 구분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해살이 식물이 아닌 나무를 보면 그 주어진 시간을 줄기에 새겨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주변의 나무들에서 그 세월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에 나무가 많이 자라서 나무를 솎거나 가지치기를 하면서 나무를 잘라서 보게 되었을 때 찾아볼 수 있는데, 한 해 동안 나무가 살아온 흔적이 원 하나에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물이 다시 살아난다는 봄, 푸르고 잎을 피우고 자라는 여름, 결실을 맺기 위한 가을, 추운 겨울을 맞이하며 그동안의 많은 일들을 내려놓고 휴식과 함께 다음을 준비하는 것들을 각각의 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나이테라고 부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한 해를 구분지어 사는 것은 주어진 자연적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생활의 흐름을 구분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구분을 짓는 식물로 대나무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대나무는 외형적으로 보았을 때 마디가 있습니다. 대나무는 싹이 돌아날 때부터 많은 마디를 갖고 자랍니다. 요리에 들어 있는 죽순을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대나무가 싹에서부터 갖고 있는 마디는 시간이 갈수록 길이가 길어지며 단단해 집니다. 대나무의 마디는 대나무가 꺾이지 않고 길게 자랄 수 있게 도와줍니다. 대나무가 갖고 있는 마디는 세상의 험한 풍파를 견딜 수게 하는 장치라 볼 수 있습니다.

2026년은 병오년입니다. 붉은 말의 해라고 의미를 부여해서 이야기 합니다. 말은 쉽게 볼 수 없는 동물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말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말은 사람이 타고 다니며 멀리까지 갈 수 있는 교통과 통신의 수단이었으며, 전투시에는 빠른 기동력과 위치적으로 위에서 공격할 수 있는 중요한 동물이었습니다. '붉은 말의 해'하면 삼국지에 나오는 적토마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풀이하면 붉은 토끼같은 말인데 붉은 빛이 도는 털에 토끼처럼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어서 이름을 붙이게 되었으며 강력한 장수인 여포가 타면서 활약을 펼쳤던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붉은 말의 해는 새로 주어진 한 해를 강한 열정으로 살아가자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에 말을 볼 수 있는 곳은 제주도와 경마장의 말입니다 경마장에 있는 말은 가장 좋은 말들이 모여 달리기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경주마들은 눈 가리개를 하고 있습니다. 차안대라고도 하는데 경주마의 좌우 시야를 가려고 앞만 집중해서 보고 달릴 수 있도록 하는 장비입니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목표를 향해 전력으로 달려가기 위한 방법입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말을 상상해 보았을 때, 빌립보서 3장에 나와 있는 사도바울의 말씀이 떠올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쫓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새해, 우리는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올 한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바라고 복을 빌어 줍니다. 쫓대를 향해 달려가는 붉은 말을 상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삼시다. 나이테와 대나무의 마디처럼 한해를 구분하고 정리할 때, 승자에게 주어지는 믿음으로 의롭게 살았다 칭찬받는 상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최기찬 전도사

한주간의 말씀

“ 내가, 주님의 계명들이
가리키는 길을 견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기쁨을 누릴 길은 이 길뿐입니다. ”
< 시편 119편 35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393, 301 / 305

기도 :

성경 : 빌립보서 4 : 4-7

제목 : 메시아께서 스스로 수난을 당하시다

1. 내용: 감옥에서의 권면 (What)

<문단구분>

4~7절 <사도바울의 권면>

2. 의미: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Why)

- 1)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을 기뻐하라
- 2) 그 관계 속에서 기뻐할 수 있다.
- 3) 그러면 상황을 넘어서서 기뻐할 수 있다.

3. 적용: 항상 기뻐하라. (How)

- 1) 그 결과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한다.
- 2)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동지 이사 도우미

오늘은 평소 방학 날이면 평균 600보도 안 걸을 날이지만, 일을 하게 되어 총 7301보를 견게 된 날이다.

오늘 한 일은 컨테이너 ‘동지’를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작업이었다. 아침 10시까지 누워 있다가 아빠가 일하러 동지 앞으로 오라고 해서 동지로 갔다.

동지에는 이안이 오빠, 예흠이 오빠, 흥인이 오빠와 아인이 언니. 그리고 성함을 다 알지 못하는 남자 어른들 몇 분이 계셨다. 동지 안에 있는 짐 그리고 가구 등을 다 밖으로 꺼내고 안 쓰는 가구들은 분해하고 버렸다. (내가 안 버려서 어디다 버렸는지 모른다.)

오빠들과 어른 분들이 피아노를 옮기는 것을 보았는데 정말 힘들어 보였다. 또 오늘 날씨가 엄청 추워서 엘사에게 공격당하는 것처럼 보였다. (나도 손가락이 잘 안 움직일 정도였다)

중간에 그루터기로 돌 판을 가지러 갔었는데 돌 판들이 얼어서 빠루로 때려서 떼어냈다. (물론 오빠들이.) 돌 판을 언니와 같이 날랐는데 많~~이 무거웠다. 돌 판들을 동지가 갈 곳 바닥에 꼭지점에 두고 수평을 맞췄다. (물론 내가 안하고 김종필 집사님이 하셨다.)

그리고 나서 공동식사로 국수와 감자전을 먹었다. 양파절임이 제일 맛있었다.

그 다음 크레인이 동지를 옮기는 것을 본 후 다시 짐들을 동지 안으로 옮겼다. 그리고 끝인 줄 알았는데 어린이 교무실과 과학실에 있는 짐들도 다 옮겨야 하는 거였다. 집에 가고 싶었다. 중간에 무거운 짐을 들 때마다 ‘아까 돌판 보다는 가볍잖아?’라고 생각하며 날랐다.

다 나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다 끝내고 나니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다.

일을 끝내고 다같이 버거킹에서 맛난 간식도 먹었다. 힘들었지만 보람 있는 하루였다.

방학 중 많이 걸은 날로 손에 꼽히는 날이었다.

푸른꿈사랑방 정아영 학생

지금 여기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을 하다가 4절에 이르면 눈물이 왈칵 쏟아져서 더 이상 찬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줄지어 진리의 허리띠를 매기 위해 서 있는 지체들의 모습을 보면 이 가사가 현실로 다가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이 나와 영원히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님을 찬양할 사람들이구나... ‘영원’이 바로 내 곁에 바짝 다가온 듯하여 가슴이 벅차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듭니다.

생활공동체 영성훈련 첫 시간에 마음껏 찬양하고, 함께 그날의 성서일기 말씀을 나누면서 또한 함께 공동체 놀이를 하며 박장대소하는 모습들에서 다시 한 번 이 감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목소리로 드리는 찬양은 한 고백이 되어 우리 안에 한 아버지, 주님만을 섬긴다는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같은 말씀을 읽었지만 다양한 관찰과 내용의 의미를 나누고 삶의 진솔한 적용들이 나뉘지니 말씀이 이토록 풍성해질 수 있구나 새삼 깨달으며 나의 적용점 밑에 빼곡히 식구들의 나눔을 적었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귀한 나눔들입니다.

함께 공동체 놀이를 하며 마음껏 큰 소리로 웃고, 붉게 상기되어 행복해하는 얼굴들은 정말 해처럼 밝아 보여 눈이 부실 정도입니다.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과 함께 지금, 여기, 사랑방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진정 감사드리며 2026년을 기쁨으로 시작합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장영미 전도사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최기찬 전도사
찬 송 : 213장, 433장
성 경 : 빌립보서 3:1-16
말 씬 : 하나님의 부름을 위해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전쟁의 종식을 위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가자지역과 레바논, 태국과 캄보디아, 미국과 베네수엘라 등 끊임없는 전쟁의 소식이 속히 끊어지도록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한국 교회를 위해>
1)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먼저 위하도록
2) 다툼과 싸움보다는 화해의 모습을 실천하도록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
1)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2) 새해를 감사와 기쁨으로 맞이하며 주님 안에서 열심을 다 하도록

<생활공동체 소식 >

송구영신예배와 시무식. 그리고 생활공동체 영성훈련 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주간이었습니다.

특히, 생활공동체 영성훈련으로 공동식구들이 함께 모여 성서일기 나눔을 하면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나누는 시간이 가졌습니다. 레크리에이션과 공동체 훈련은 서로에 대해 더욱 알아가고 친밀해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2026년을 시작하는 첫 주간에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생활공동체의 한 해 생활을 기대합니다.

< 장영미 전도사 >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히브리서 12 : 1-2 인도자
20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요한복음 5 : 24 인도자
550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교 “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 ” 정재훈 목사

시편 119 : 33-41 설교자
560 그루터기사랑방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293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김병우 정영옥 / 봉헌위원 : 채영학 / 꽃꽂이 : 김영화
돕는 이들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이홍인 정아인

예 배

공동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

마음을 깨우침. 시편 기자는 내 마음을 깨우쳐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발견하는 오직 하나의 방법은 주님의 계명과 주님의 법과 주님의 증거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마음은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목적. 소요리 문답의 첫 질문은 사람의 제 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입니다. 그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의 표현은 반드시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기쁨은 숨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함. 영광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기쁨은 찬양으로 표현될 때 완전해 집니다.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실 때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장성아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어린이학교 >

감사합니다!

딸아이가 어린이학교로 전학을 오게 된 5학년 여름방학. 이렇게 만족스러운 학교로 오게 된 것은 모든 학교를 뒤지고 찾아낸 스스로의 고생 덕분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탕자 같이 못한 양인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자식까지 이다지도 사랑하시는지요. 평생을 '매달리고 방향하고'의 연속인 나의 연약한 신앙 속에 하나님께서는 어린이학교를 통해 저를 다시 불러주셨고 나의 아이를 불러주셨습니다.

아이 아빠와 학기말 면담마다 늘 같은 후회를 하곤 했습니다. 일찍 어린이학교를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모르고 살았을까... 1년 반이라는 짧은 시간 속에 아이는 마음이 안정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였고, 표정도 많이 밝아져서 예뻐지고 있었어요.

예전 일반 학교에서 아이는 화가 많이 나있고 예민해 있었습니다. 주관이 뚜렷한 개성 있는 아이였기에 거칠게 다가오고 조정하려는 아이들이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하기 싫다, 옳지 않다'는 판단에 목소리를 높이면 핀잔을 받거나 무리 속에서 배재 당해서 힘 있는 아이들의 말을 따라야 했고, 그러지 않으면 친구라 믿었던 아이들에게 내치르기 때문에 무리 속에 남기 위한 '생존'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저의 아이는 남들보다 일찍 꿈에 도전하며 스스로의 길을 찾으며 걸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기특하게도 대한민국 대표 키즈로 국가 간 수교 행사 때 해외로 가서 공연도 여러 번 하고, TV에도 나오고, 영화도 한 편 찍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 때문에 멋쟁이에 진학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이학교의 생활을 보면서 멋쟁이에 진학하면 심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단단한 멋진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으리란 확신은 당연했으니 아이가 6학년을 보내는 동안 기도하면서 마지막 선택이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이라 믿겠다며 기도를 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아이에게는 한층 꿈에 다가가는 길들과 기회들

배움과 가르침

이 펼쳐졌고, 아이는 꿈을 따라가기로 결정을 했었죠. 부모인 저희는 너무 많은 고민들로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더욱 험한 생존' 같은 일반 중학교에 가서 혹여나 안 좋은 일에 휘말리진 않을지, 매일 학교 끝나면 강남 회사까지 데려다줘야 하는 일을 비롯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남편과 다시 기러기 부부가 되어 서울로 이사를 가야 하나까지 고민하던 찰나, 위독하신 시아버님을 위해 기도를 할 때 처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아이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겠다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아이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의 쓰임대로 쓰소서.'라는 기도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늘 잘 살피달라는 부탁의 기도만 했었죠. 너무 험난한 길로 쓰실까봐, 혹여 일찍 데리고 가실까봐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며칠 뒤, 기쁘고 따뜻하게 어린이학교 종강 발표회를 마쳤어요. '아~, 어린이학교가 이로써 마지막이구나.'하는 만감이 교차한 아쉽고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밤 10시경 아이를 태우고 집으로 가는 길. 몇 번을 묻고 설득해도 변함이 없었던, 너무나도 굳건하게 꿈의 길을 가겠다던 아이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멋쟁이학교를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너무나도 기뻐서 웃음이 났습니다. 이렇게 좋은 곳에서, 존경받아 마땅한 이 시대의 진정한 선생님들의 울타리 안에서 스스로 설계하는 주체적인 삶,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 나이에 맞게 친구들과 수많은 추억을 만들며 경건하고 귀한 신앙 안에서 자라날 수 있다는 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결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크게 느꼈습니다.

어린이학교는 하나님께서 한 가정에게 역사하신 귀한 학교입니다. 모든 가정에게 그러할 테지요. 또 다른 부모님이 되어주신 선생님들, 헌신과 봉사로 아이들을 함께 키워주신 부모님들. 이 모든 것이 사랑방공동체 어린이학교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헌신 해주신 공동체 식구 분들!

- 어린이학교 6학년 정소니 엄마 이종진 -